

과떼말라 선교소식

11/24/2020 현재

Comunidad Galilea

Chisec, Guatemala, CentroAmerica

변건웅, 함종금 선교사

11월13일 허리케인이 몰고온
폭우로 공동체가 있는
치섹길이 도중에 홍수 강이
생기매, 길이 차단되어 꼬방
K선교사가 운영하는 Ami
선교센터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날 아침 택시로 치섹을
향했다. 그러나 길이 강이
되어 있어 뗏목을 타고
건너야 했다. 택시를 보내고,
기다리던 헬무트 전도사와
강을 건너 치섹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할렐루야! 감사!



이번 여행에 갈릴리 공동체 제자운동에 필요한 성경 라디오 30대를 준비해 왔다. 준비해 주신 J집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헌물해 주신 컴퓨터 2대를 한대는 해밀턴 선생, 또 한대는 교목, 헬무트 전도사에게 드렸다. 두사람 다 컴퓨터 고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헬무트 전도사는 4년전 뉴욕 능력교회 안성국 목사께서 새 것을 선물로 주셨다. 최근에 고장이 나 못쓰고 있었는데, 때맞춰 주님께서 J 집사님을 통해 공급하셨다.



카리브 해에서 시작된 태풍 에타, 요타의 4-5주에 걸친 폭우는 과테 전역을 강타, 산사태와 홍수로 인프라가 전무한 이지역에도 감당할수 없는 교통두절을 가져왔다. 바로 공동체가 있는 마을에 생긴 강과 호수... 꼬방과 치섹 80Km 사이에 홍수범람으로 5군데가 뗏목을 사용해야...



왼쪽 나무뒤로 보이는 담이 갈릴리 공동체의 청소년센터 벽. 길이
변해 강이 되어 하시라도 나무들이 쓰러지고 공동체속으로 물이
침범할 기세다. 이 길이 막혀 뒷마을 주민은 공동체 뒷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CV 감염을 줄이기 위해, 과테 교육부는 다음주 졸업식도
거행치 말고, 교직원들이 직접 가정방문, 졸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



학교 바로 옆에도 범람으로 호수가 생겼고, 학교 앞에도 또한 물이 넘친다.



저녁식사후 선교관으로 돌아가면서 우중에도 안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내가 두 손들어 감사하고 있다.



갈릴리 공동체 탐파 농장관리인 오스왈도가 따온 바나나 2손을 들고 미소하고 있다. 농장을 통해 우리의 풍성한 공급자 이신 하나님을 항상 만난다. 바나나, 유까(중남미 주식인 뿌리 음식), 레몬, 빠빠야, 망고(금년은 소출이 없다), 아보카도, 생강, 노니(성인병 특효), 비터멜론, 커피, 파인애플 등...





● **코로나 감염전쟁으로 인해 파괴, 폐쇄된 산업과 학교들...**

과테말라내의 많은 산업과 학교들이 마비, 파괴되었고, 이제 산업이 조금씩 돌아오는모양인데 학교와 교회들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폐쇄된 상태이다. 갈릴리 공동체는 과거부터 치섹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헬무트 전도사 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일주일 한 두 시간 복음방송을 해 왔었다.

● **창조적 돌파구...**

학교가 폐쇄되어 공동체 소속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스마트 폰을 통해 숙제를 내어주고, 부분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는 라디오 사용을 집중, 사용하여 주중에는 **매일 오후 6-7시 1시간 복음방송을 4개의 갈릴리 공동체 소속 어린이 교회들과 1개의 청소년 교회** 담당 전도사 들이 번갈아 프로그램을 주관, 제작하여 치섹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흥미있게 전하고 있으며,

좋은 반응에 1시간씩 더 늘이고, 아울러 방송시간을 통해 학교교육의 일부를 활용하기를 모색하고 있다.

● **토요일과 주일은 오후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라디오 방송은 현지 주민들 대개가 사용하는 껍치(원주민 인디언 사용 고유언어) 로 하는데 반해, 갈릴리 공동체 프로그램만은 스페인어로 하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체학교 전체 교목이자, 예배 및 전도사역 책임자인 헬무트는 다양한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에게 각각 스페인어로 다가가고 있다. 치색에 큰 축복이다. 토요일과 주일은 오후4시부터 9시까지 5시간을 다양한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에게 방송한다.

● **공동체는 이제 이방송국에 더많은 시간 방송을, 안테나를 더 높여 멀리까지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정부의 무모한 학교폐쇄로 인해 가정에 갇힌채 고통하는 가난한 치석마을에 소망과 기적을 가져오고 있는 FM 라디오 방송국!...



드려다 본즉, 한 평 남짓한 협소한 방에 현재 공동체 제자중 하나인 린지 자매가 혼자 방송을 하고 있었다.



BIENVENIDOS
RADIO SINAI 101.5 FM
A ESTE LUGAR



●청소년 교회 주일예배...

지난 주일 조출히 선교사끼리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제 어린이 예배는 금지되어 드릴수 없지만 청소년 예배는 계속 드린다. 70여명의 제자들중 참석가능한 50여명이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등 훈련을 받고 있음은 고난중 감사한 일!

공동체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약 400명이 재학하고 있다. 장기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번 졸업하는 학생들은 113명. 학년은 1월 중순에 시작하여 10월말에 끝난다.

● 현재 약 70여명의 제자들 (Seguidores)이 있다. 이들은 각 중학교 및 고교 학급 담임들의 배경조사, 건의를 받아 교장이 추천하고 선교사들의 면담을 거쳐 제자훈련생이 되고, 선임 고참 제자들의 훈련을 받고, 여러가지 전도, 봉사, 통역, 권장독서 등 공동체 사역에 투입되어 수년의 과정을 거쳐 성장, 성숙된다.

● 특히 해마다 5월말에서 8월중에 10여그룹의 미국내 한인 선교팀들의 방문시 저들은 각자의 기량과 숙련에 합당하게 팀의 일부로 동행하여 현지 토착어(꺍치어)를 스페인어/영어로 통역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형편껏 돕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과 책임, 봉사와 헌신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또, 개인의 능력과 기독교적 인격을 따라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공동체 학교의 여러 직책에 유급직원으로 채용 되기도 한다.





JESÚ
SALVAC
SAVEF

EDUCACION FISICA
REGILZON

예배후 성경찾기 대회를 통해 말씀읽기에 도전받는 청소년들



예배후 분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고무시킨다.



70여명의 제자들중 선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룹 성경공부가 여러 그룹으로 분반, 진행된다



보고를 마치며

금년3월 말이후 7개월이상 선교여행을 못하고(보통 5월~8월, 12월~2월에 과떼에; 2~4월 및 10~11월 인도에 체류) 뉴욕에 칩거, 11월13일에야 과떼에 제한적 여행이 허가되어 이곳에 왔고 2021년 1월14일까지 이곳에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에 참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①코로나이후 학교전반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 ②공동체 짐을 나눌 젊은 선교사를 보내주시길;
- ③라디오사역을 통해 복음과 학교사역이 확장되게;
- ④청소년 제자사역 열매가 풍성케;
- ⑤나눔사역이 생활화되게.